

# J. J. 톰슨 - <낙태에 대한 옹호> Part 1

○ ○

※ 사회주의 글은 아니라 로깅사전 탭에 올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수하였다면 맞는 카테고리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부터 논문의 전문 번역입니다.

낙태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태아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존재, 혹은 사람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내 견해에 이 주장은 그닥 설득력 있게 개진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가장 보편적인 주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우리는 임신된 순간에서부터 탄생, 그리고 소아기까지 인간 존재의 발생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발생 과정에 하나의 선을 긋고 "이 지점 이전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지점 이후부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에 불과하며,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거를 펼칠 수가 있으나, 도토리보고 참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형식의 논증은 때때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고 불리는데 - 이름 그대로다 - 낙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에 그토록 크게 의지한다는 점은 당황스럽다.

그러나,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선을 긋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태아가 탄생보다 한참 이전에 이미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특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이른 일이다. 예컨대, 10주차에 태아는 이미 얼굴, 팔다리, 손가락과 발가락을 갖고 있으며, 장기는 물론 뇌의 활동 역시 감지될 수 있다. 반면, 나는 앞선 전제, 즉 태아가 임신된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갓 수정된 난자, 방금 착상된 세포 덩어리는 도토리가 참나무가 아닌 것처럼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나는 혹여 앞선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앞선 전제로부터 낙태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낙태반대론자들은 대부분 태아가 사람이라는 논증을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거기에서부터 낙태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출하는 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어쩌면 이 논증 단계가 노력을 투자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하고 명백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혹은, 그들은 효율적인 논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상당 수는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탄생의 순간에 사람이 될 조직 덩어리라는 논제에 의존한다. 왜 필요 이상으로 논변을 펼쳐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나는 이 단계가 단순하지도, 명백하지도 않으며, 보통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순간 이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나는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여기에서부터 논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이 있다. 따라서 태아는 생명권이 있다. 물론 산모는 자신의 몸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생명권은 산모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보다 더 강하며 엄격하므로, 더 중요하다. 따라서 태아는 죽어서는 안 되며,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을 상상해 보자.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의식을 잃은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음을 발견한다. 의식을 잃은, 매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말이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치명적인 심장 장애를 앓고 있으며, 따라서 음악 애호가들은 가능한 모든 의학 기록을 조사한 결과 오직 당신만이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도울 수 있는 혈액형을 가졌음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음악 애호가들은 당신을 납치한 후, 어젯밤 바이올리니스트의 순환계는 당신과 연결되어서, 이제 당신의 신장은 당신의 혈액 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의 것까지 여과하고 있었다. 병원의 원장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악 애호가들이 당신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알았더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터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바이올리니스트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끊는다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오직 9개월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바이올리니스트는 질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며, 안전하게 당신과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가? 물론 이를 수용한다면 매우 선한 일이자,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가? 9개월이 아닌 9년, 혹은 더 긴 기간이라면 어떨까? 원장이 당신에게 "안된 일이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와 연결된 채로 평생을 침대 위에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고 있으며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의 신체에게, 그리고 신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권은 신체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히 연결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논리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내가 방금 언급한 그럴듯해 보이는 논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 경우에 당신은 납치되었을 뿐더러, 바이올리니스트를 당신의 신장과 연결하는 수술에 자원하지 않았다. 내가 앞서 주장한 논거를 토대로

낙태반대론자들이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예외를 둘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사람이 강간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지 않았을 때만 생명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갖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한 생명권을 갖고 있다고, 즉 강간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자들은 더 약한 생명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닥 듣기 좋지 않다. 물론 우리가 생명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혹은 어느 수준의 생명권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강간으로 인해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앞서 언급한 논거를 토대로 낙태반대론자들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강간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산모가 임신해 있는 9개월을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도 않는다. 그들은 물론 산모에 동정을 표하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이 있고, 태아는 사람이다. 나는 임신이 기적적으로 9년, 혹은 산모의 남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외를 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도 반대할 수도 있다. 오늘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많은 낙태반대론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이는 좋은 출발점이다. 일련의 쟁점들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1.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조차 반대하는 견해를 “극단적인 견해”라고 부르자.** 나는 우선 이것이 내가 앞서 언급한 견해에서 일부 강력한 전제들을 추가하는 일 없이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 여성이 자신의 심장병 때문에 아기를 9개월간 임신하고 있을 경우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산모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태아는 생명권이 있으나, 산모 역시 인간이기에 생명권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동등한 생명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만일 산모와 태아가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우리는 동전을 던지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산모의 생명권에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더하여,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넘어선다고 보아야 할까?

여기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낙태는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모를 죽이는 것이 아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기는 산모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에 아기를 죽이는 것은 결백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1) 그러나 결백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낙태는 이루어져서 안 된다. 혹은, (2) 결백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살인은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낙태는 이루어져서 안 된다. 혹은, (3) 결백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을 막을 의무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의무보다 더 무거우므로, 낙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혹은, (4) 만일 우리의 선택지가 결백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선택해야 하므로, 낙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 명제들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중간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고한 사람은 생명권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류로 보이며, 아마도 이를 보이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비록 무고한 사람에게는 생명권이 있으나, 명제 (1)에서 (4) 모두가 거짓임을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2)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만일 무고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 산모가 자신의 몸 속에 있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산모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스스로에게 낙태를 한다면, 이는 살인이라고 생각되기 어렵다. 산모가 낙태를 삼가야만 하며, 수동적으로 앉아 스스로의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될 수는 없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으며, 병원의 원장은 당신에게 "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며, 저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이 일은 당신의 신장에 추가적인 무리를 가하며, 당신은 이번 달 중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서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끊는 행위는 무고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며, 이것은 살인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와 자신의 연결을 끊어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당신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글에서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였을 때 제삼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기에,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제기된 질문은 제삼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거의 여담에 가깝게 추론되는 형식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산모에게서 태아를 임신한 당사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삼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서부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신이 성장 중인 아이와 함께 작은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 집은 매우 작으며, 이 아이는 재빠르게 자라고 있어, 당신은 이미 벽에 딱 붙어 있으며 몇 분 뒤에는 압사할 것이다. 반면 아이는 압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아무것도 아이의 성장을 막지 않는다면, 아이는 다칠 것이지만 결국에는 집을 뚫고 나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나는 지나가는 행인이 "저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누가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아이가 무고할지언정, 아이가 당신을 압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다. 어쩌면 산모는 자신이 우리가 자기방어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집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

른다. 그러나 만일 산모가 아이를 품고 있다면, 산모가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기억되어야만 한다.

나는 어쩌면 내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나는 자기방어권에 대한 엄격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고문해 죽인다고 협박한다면, 나는 설령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일지언정 당신이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우 다르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오직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며, 한 명은 목숨을 위협하는 자, 다른 한 명은 위협받는 자였다. 둘 모두 무고하다. 위협받는 자는 어떠한 잘못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아니며. 위협하는 자는 어떠한 잘못 때문에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이 개입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협받는 사람은 개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산모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목숨을 위협할 경우, 설령 그것이 태아를 죽여야 하는 일일지언정 스스로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고작 (1)에서 (4)번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낙태의 극단적 견해가 거짓이며, 따라서 우리는 시초에 언급된 주장에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물론 극단적인 견해는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제삼자가 아닌 산모가 직접 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참일 수 없다. 우리가 기억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산모와 태아가 불운한 착오로 인해 작은 집에 함께 세를 든 두 세입자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산모는 집의 주인이다. 이 사실은 제삼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부터 산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추론해 내는 논증의 공격성을 더한다. 그러나 이는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은 제삼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에 밝은 빛을 비춘다. 우리는 만일 제삼자가 "당신들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만일 존스가 스스로를 얼어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코트를 찾아 입었으며, 스미스 역시 그것이 필요하다면, 스미스가 이 코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들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여성들은 계속해서 "이 몸은 내 신체이다!"라고 말해 왔으며, 분노할 이유, 그리고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낄 이유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만일 우리가 "당연히 저 코트는 당신 것이며,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당신과 존스 중 누가 저 코트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가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스미스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 줄 리는 만무하니 말이다.

우리는 태아를 품고 있는 몸이 산모의 몸임에도 "아무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물론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더 흥미로운 무언가, 즉 비록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정의가 요구할 경우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느낌 탓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의는 누군가에게 존스로부터 스미스의 코트를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존스에게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할 권리,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내 생각에 이는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단지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더 정확히는 "나는 행동할 수 없다"고 언표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다른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특히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전혀 어렵지 않다. 나는 모든 제삼자가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산모가 요구할 경우 낙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단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견해에서는 산모가 단지 자신의 몸을 빌렸을 뿐이며, 따라서 산모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가능성을 무시할 것이다. 내 자신의 견해는 만일 인간 존재가 어떤 것에 대해 정의롭고,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면, 그 자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정의롭고.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실은 여기에서 언급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서 내가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낙태반대론적 주장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 속, 혹은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그 권리를 부여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들이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산모의 몸이 담보로 걸린 경우에서 고개를 돌릴 경우, 특히나 산모가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이유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더 흔한 경우를 살펴볼 경우, 이 사실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3.** 산모의 목숨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 내가 시초에 언급한 논증은 더 강력해 보인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이 있으며, 따라서 태아 역시 생명권이 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은 산모 자신의 생명권을 제한한다면, 산모가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무겁지 않은가?

이 주장은 생명권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룬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정확히 실수의 기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침내 생명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어떤 견해에서는 생명권이 있다는 것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내가 죽을병에 걸렸

으며,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헨리 폰다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 역자)가 내 눈썹을 만지는 것이라고 한들, 나는 헨리 폰다의 손길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 물론 헨리 폰다가 서부에서부터 여기로 날아와 나를 만져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만일 내 친구들이 서부로 날아가서 헨리 폰다를 데려온다면, 아까보다는 조금 덜 좋을 것이지만 여전히 선의에 가득찬 행동이다. 그러나 나는 헨리 폰다가 나를 만져주어만 한다고 주장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혹은, 앞서 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신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가 당신의 신장의 사용권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이올리니스트는 물론 당신에게 신장을 계속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당신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신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만일 당신이 신장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이는 당신의 호의이지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몫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당연히, 음악 애호가들로 하여금 당신의 신장과 자신의 혈관을 연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9년간 바이올리니스트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듣고 연결을 끊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바이올리니스트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막을 의무가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권에 대해 더 엄격하다. 그들의 견해에는, 생명권은 그 어떤 것을 받을 권리도 포함하지 않으며, 오로지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한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만일 어떤 사람도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일 수 없다면, 이는 다양한 행동들로부터 제약을 받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도 바이올리니스트의 목을 그을 수 없으며, 총으로 쏠 수도 없으며, 당신과 바이올리니스트의 연결을 끊을 수도 없다. 그러나 과연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당신의 연결선을 끊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가? 연결선을 끊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같다. 물론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당신의 신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즉, 비록 바이올리니스트는 우리의 심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신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제삼자의 개입에 대한 는 추후에 다룰 것이다.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는 당신에게 당신의 신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물론 당신이 신장을 허락하는 것은 자비로운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보이고자 한 어려움은 생명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자연권들과의 연결점에서도 다시 나타나며, 권리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반대로, 나는 어떤 권리에 대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분석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권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지 생명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설령 그것이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생명권은 낙태반대론자들의 생각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낙태에 대항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